

KEA 협회 주요사업 현황 >>>

대한전기협회는 1965년 설립 이후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전력산업, 전기공업, 전기안전 등 전기 전반에 관한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여 산업의 진흥·문화의 창달, 공익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을 다각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전기협회의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비전 등을 주관 부서별로 소개합니다.

기술기준처

- 주요업무 : 전기사업법 제67조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 관리업무, 기술기준관련 정부정책 과제 수행, 기술기준 홍보·교육·교류협력 업무

□ 전기사업법 제67조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 관리업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제정 목적은 전기설비의 안전과 공중의 안전, 전기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정이다. 기술기준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전담관리조직으로서 450여명이 참여하는 21개 세부위원회로 구성된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를 중심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기술기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를 3가지로 대별하면 첫째, 기술기준/판단기준의 제·개정 및 조사연구, 기술지침/규정 개발, 기술기준 교육/홍보 등의 기술기준과 판단기준의 유지관리업무.

둘째, 국제화된 기술기준의 정착 및 유지관리업무로서 WTO/TBT 협정이행을 위한 국제표준 도입검토 및 판단기준의 선진화.

셋째, 신기술·신공법의 기술기준 도입 및 민간표준 활성화를 위한 기술기준 적합성평가 업무와 함께, 정부 및 민간에 대한 대정부 기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기술기준 관련 정부정책과제 수행

우리 처는 IEC/TC 64(저압전기설비), IEC/TC 99(고압전기설비), IEC/TC 81(피뢰설비), IEC/TC 88(풍력설비) 국내간사기관으로 지정되어 국제표준에 대한 기술검토 및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 지정되어 92종의 KS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IEC 접지시스템 도입을 위한 연구, 국내 중소기업의 전력기자재 수출 지원을 위한 베트남과 중국 등의 전력기자재 규격개발 연구, 풍력국제표준화 사업, 기술기준 선진화 및 기술근거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기술기준 홍보·교육·교류협력 업무

기술기준 기술교류 및 정보교환을 위해 한일전기기술교류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고, 중국전력기업연합회, 슈나이더일렉트릭(사) 등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기술기준의 제·개정 의견수렴 및 기술기준 최신동향 전파 등을 위해 매년 '전기의 날' 인 4월 10일을 전후해서 기술기준 워크샵과 11월 기술기준 기술세미나 및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술기준의 적용편의성 제공을 위한 전기상담실 운영과 기술기준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기술기준 해설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interview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선진화로
녹색성장 기반확보

기술기준처 처장 김 한 수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설비의 설계·시공·검사·유지관리 등에 있어 법적 안전기준으로서 WTO/TBT 협정에 따른 국제화 대응체제로 개편한 이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대한 국제표준(KS포함) 제·개정사항의 반영 및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위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2009년에는 전기산업계의 커다란 현안 사항이었던 IEC 전선 및 배선방법, 기존 전기설비의 단독접지방식에 IEC 접지방식을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반영하였으며, IGCC 발전과 탈황·탈질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의 정비도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위원님 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는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정부위탁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기술기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기반 마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조력발전 관련 기술기준을 정비 또는 신규로 제정할 예정이며, 스마트그리드와 관련한 기술기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IEC 표준 도입을 위한 『접지방식 및 등전위분당, 서지보호기 적용을 위한 기술지침』등의 개발 및 전기안전을 위한 특수장소의 시설기준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IEC 61936에 대한 기술기준 도입 검토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4월 7일부터 9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되는 『2010년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샵』도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2010년판 내선규정 발간에 즈음한 전국 주요 도시의 순회설명회와 기술기준의 해설교육, 전기상담실 운영의 내실화로 “봉사하고 선도하는 전기협회”가 되는데 앞장 서는 기술기준처가 되겠습니다. KEA